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uture Terrorism : Its Patterns and Perspectives

최진태**

<목 차>

I. 서론	III. 국제 테러 양상에 대한 전망
II. 국제 테러 현황 및 유형 분석	IV. 결론

<요약>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철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테러유형, 대테러, 미래 테러 전망, 테러환경, 테러통계

*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예리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들에게 본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

I. 서 론

2001년 9월 11일, 납치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에 대한 자살 테러 공격으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무고한 시민 2,74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대미문의 9.11 테러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大)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해군이 진주(Pearl Harbor)만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일본군은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 전투기 441대, 소형 잠수함 5척 등을 동원하여 하와이 오아후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진주만 공격으로 12척의 미 해군 함선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했고,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당하거나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2,403명의 군인과 6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¹⁾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수단의 과학화는 테러 사건의 대형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테러의 성공률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테러범들이 소형 재래식 무기 등을 이용한 테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테러조직이 지대공(Surface-to-Air) 미사일²⁾ 등을 비롯하여 핵무기로 무장하려는 시도가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테러 수단 중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폭발물 테러의 경우도 재래식 금속 탐지기로는 발견이 불가능한 첨단 플라스틱 폭탄³⁾ 등이 이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

1) http://ko.wikipedia.org/wiki/%EC%A7%84%EC%A3%BC%EB%A7%8C_%EA%B3%B5%EA%B2%A9

2) 지대공 미사일은 주로 민간 항공기에 대한 격추는 물론 요인이 이용하는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테러 행위 수단으로 수차례 이용되었다. 테러조직이 사용했던 지대공 미사일 대부분은 소련제 미사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원탁, “국제테러조직의 전략과 대응방안”, 대테러연구, 제27집, pp. 70-71 참조)

3) 플라스틱 폭탄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체코제 셴텍스(Semtex)이며, 테러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발물 중에 하나이다. 1990년 3월에 체코의 하벨(Vclav Havel)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체코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에 1,000톤의 셴텍스를 테러 단체의 후원자로 알려져 왔던 카다피가 정권을 잡고 있는 리비아에 판매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셴텍스는 오래전에 테러범들의 손에 상당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셴텍스 200 그램이면 대형 항공기를 폭파할 수 있다(JIn-Tai Choi, Aviation Terrorism, London : Macmillan Press, 2004 참조).

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과학화에 따른 통신수단의 발전은 테러범들 간의 상호연결과 협력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다. 통신의 혁명으로 지칭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행동요원들에게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발각이나 체포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추어 주면서, 테러 계획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9.11 테러에서 증명되었듯이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한 초국가적 정보 교류는 테러범들에게 이념적 지식, 테러 전략 및 전술을 쉽게 전파하여 폭력 수준을 높이고,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며, 폭력의 잔혹성을 부추기는 요소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최진태, 2006 : 174).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질적, 혁명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테러 수단의 다양화, 대량살상무기의 테러 수단화, 비(非)물리적 세계에 대한 테러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등장에 따른 과학 기술의 테러 도구화는 대테러에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과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개념으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로 테러를 언제, 어디서나, 수단에 관계없이 공격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둘째,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기초기술로 오용될 우려가 높다. 셋째, 나노기술(Nano Technology)로 테러에 활용되는 수단을 경량화, 극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노 기술은 기존의 무기 체계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테러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신소재 및 물질 등은 테러의 조기 발견과 대책 수립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테러 징후의 발견, 대책, 방지 기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테러 도구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자료의 수량적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테러의 진화 양상을 따라 잡지 못하고 테러범과 테러조직의 뒤통무니를 따라다니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II. 국제 테러 현황 및 유형 분석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총 3만 2천 103건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4만 6천 849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8천 92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의 발생 건수는 1960년대에 200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발생 건수의 증가와 함께 테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사상자의 증가가 단순히 발생 건수의 증가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 당 사망자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0년 단위로 사건 당 사망자 수를 보면, 1970년대가 0.7명, 1980년대가 1.13명, 1990년대가 1.21명, 그리고 2000년대가 1.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조직의 대표적인 공격 유형은 폭발물 테러, 무장공격, 암살, 납치, 방화 등이다. 1968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3만 2천 103건의 테러 사건 중에 56%인 1만 8천 115건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무장 공격(7,293건), 암살(2,361건), 납치(2,190건) 순이다.

<표 2-1> 테러 발생 현황(1968-2006)

연도	테러 건수	부상자	사망자
1960s	200	253	36
1970s	2,150	3,631	1,504
1980s	3,408	9,366	3,868
1990s	4,707	26,126	5,693
2000s-	21,638	69,544	35,748
합계	32,103	108,920	46,849

출처 :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폭발물 테러, 암살, 무장공격 그리고 방화 등의 전술 형태는 공격의 시작과 함께 테러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반면, 인질 테러의 공격유형은 특정·불특정 다수의 인질을 확보해두고 확보된 인질을 이용하여 테러범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자의 공격방법은 테러범과의 대응문제를 불가피하게 야기시키는 공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 테러 유형 현황(1960-2006)

공격유형	사건 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폭발물	18,115	87,086	24,472
무장공격	7,298	14,267	12,409
암살	2,361	1,296	3,021
납치(인질)	2,190(209)	192(2,209)	1,459(903)
방화	1,065	332	382
하이재킹	229	376	482
기타	166	426	152
비(非)재래식 공격 ⁴⁾	56	2,440	3,004
미확인	414	296	565
합계	32,103	108,920	46,849

출처 :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1. 폭발물 테러

폭탄테러는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건물 등 시설물과 비행기 등 장비를 파괴하는 전술형태를 말한다. 폭발물은 기본적으로 폭약에 이것을 폭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폭장치, 그리고 기폭장치를 폭발 가능케 할 수 있는 전원장치(소이제, 이 경우 비전기식 방법인 도화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로 구성된다. 폭탄 공격은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용이하게 입수 및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범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하는 전술형태이며, 오늘날 가장 빈번한 공격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폭탄테러는 대량살상, 대량파괴, 심리적 위협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 용이하여 자행 테러범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을 색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특히 폭약을 기폭시킬 수 있는 기폭장치는 테러범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폭발물이 폭발 전에 발견되더라도 안전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격대상을 쉽게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테러조직이 선호하는 공격 전술이 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대도시의 인구 집중현상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피해 및 혼란효과의 극대

4) 비(非)재래식 공격은 폭발물, 무장공격, 암살, 납치 등과 같은 기존의 테러 공격이 아닌 생화학 그리고 방사능 물질 등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비(非)재래식 공격에는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사건 등이 포함된다.

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폭발물의 운반도구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대중화는 폭파테러를 가중시키는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형화, 정밀화가 가능하여 원격조정 장비 및 시한폭탄의 제조, 우편물 및 소포를 이용한 폭파테러 등 가히 상상을 초월한 공격의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폭탄 테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테러조직이 가장 선호하는 전술 형태인 폭탄 테러는 통계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556개의 테러조직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 대상도 항공기 폭파, 선박폭파, 열차 및 버스 폭파, 지하철 폭파, 송유시설 폭파, 외교 시설 폭파, 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 폭파 그리고 요인 암살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살상력이 증가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의 증가는 희생자 수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폭발 테러는 대처 시간이 급박하여 대응상의 어려움도 따른다.

2. 무장 공격 테러

무장공격은 테러공격 대상에 대하여 권총, 기관총, 로켓포,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수류탄 등을 투척함으로써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전술형태를 의미한다. 공격의 방법이 되고 있는 무기들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크며, 공격 방법 면에서 잔인성과 대담성을 보여 주고 있어 공포심과 사회혼란을 최대한 조성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범의 생존을 높이고 대량살상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219개 테러 조직이 무장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 공격에 동원되는 무기는 자동화기에서부터 SAM-7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무기는 밀거래 조직을 통해 혹은 무기 판매 암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무장 공격은 단순하게 요인에 대한 공격 수단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 11월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범이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륙하는 이스라엘 항공기를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있다.

3. 인질납치 테러

인질의 사전적 의미는 “약속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상대방에 인도·억류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⁵⁾ 그리고 인질납치사건은 특정인 또는 불(不)특정인을 유

5) http://dic.paran.com/wing_frame.html?url=http%3A%2F%2Fdic.paran.com%2Fenc_view.php%3Fkid%3D173291_00%261%3D100%26q%3D%25C0%25CE%25C1%25FA

괴 또는 납치하여 억류시키거나 시설물의 사용자 및 교통수단 탑승객들을 억류시킨 후 납치 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찰시키기 위해 매개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건을 지칭하고 있다.⁶⁾ 그러나 인질납치테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인질 혹은 납치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되거나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인질억류를 의미하는 Hostage Taking⁷⁾, 유괴 혹은 납치를 의미하는 Kidnapping⁸⁾, 항공기 납치를 의미하는 Hi-jacking, 해상에서의 선박 납치를 의미하는 Sea-jacking, 그리고 육상교통수단에 대한 납치를 의미하는 Car-jacking 등이다.

인질납치테러는 인질납치의 개념에 테러⁹⁾의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며, “정치, 사회, 민족, 종교 등과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람을 납치, 유괴, 감금 혹은 억류한 후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적 국가, 관련 국가 또는 대응 당국에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 한다.

인질납치테러를 자행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요구 달성이다. 2006년 7월 19일에 시작되어 40여 일간 지속된 한국인 아프간 인질납치테러 시에 탈레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조건은 정치적인 것, 즉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철수였다.

둘째, 선행 테러 사건이나 배후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 석방이다. 1970년대에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에 의해 자행된 상당수의 인질납치테러는 동료 테러범들의 석방이 주목적이었다. 1972년에 발생한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역시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200명의 석방을 위해 검은 구월단(Black September Organization)이 자행한 사건이었다.

셋째, 테러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질의 석방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등지에서 발생한 인질납치테러 사건 중에 수백만 달러의 석방금을 지불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넷째, 테러 자행 후 혹은 체포 위험 상황에서 안전지역으로의 도피를 위한 피난처 및 이동수단의 제공요구이다.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검은 구월단은 그들이 제시한 최초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자, 인질의 석방 조건으로 아랍

6) *The Columbia Electronic Encyclopedia*(Sixth Edition), (Columbia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The Oxford Essential Dictionary of the US Militar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7) Hostage Taking은 인질범이 경찰 혹은 대응당국의 병력에 의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으로 범죄주체의 도주로가 차단된 상황을 의미한다.

8) Kidnapping의 경우는 인질범과 인질의 위치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은밀하게 억류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동함으로써 대응당국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을 의미한다.

9) 본 연구에서는 “테러는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라는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국으로 탈출을 위한 항공기 제공을 요구했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어 특정사안의 보도 등을 위한 성명서의 발표 종용 및 요구이다.

인질납치테러는 폭발물 테러, 무장공격, 암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테러 유형 중에 하나이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콜롬비아 등과 같은 남미지역 그리고 이란, 레바논, 요르단 등 중동지역,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조직이 선행 작전에 참여하여 수감된 동료 테러범의 석방을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인질을 볼모로 정치, 사회 혹은 종교적 선전 등과 같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선호했던 전술이다. 1968년부터 2006년까지 269개의 테러조직이 인질납치테러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¹⁰⁾

인질납치테러는 인질(Hostage-Taking)테러와 납치(Kidnapping)테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질테러는 1970년대에 가장 많은 6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1980년대에는 56건, 1990년대에는 52건, 그리고 2000년대에는 3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질테러는 1960년대 3건, 1970년대 152건, 1980년대 328건, 1990년대 436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271건이 발생했다.

<표 2-3> 인질납치테러 발생현황(1968-2006)

(N : 발생건수 I : 부상자 수 K : 사망자 수)

구분	인질테러			납치테러			합계		
	N	I	K	N	I	K	N	I	K
1968~1969	0	0	0	3	0	1	3	0	1
1970~1979	67	749	213	152	15	40	219	764	253
1980~1989	56	33	62	328	13	62	384	36	124
1990~1999	52	16	32	436	42	164	488	58	196
2000~2006	34	1411	596	1271	122	1192	1305	1533	1788
합계	209	2209	904	2190	192	1459	2396	2401	2363

출처 :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MIPT), Terrorism Knowledge Base

인질테러의 경우 주된 공격 대상은 외교관 및 정부 인사, 그리고 기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외교관이나 정부 인사의 경우 고도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외교관은 곧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미국 외교관을 납치하는 것은 곧 미국을 납치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외교관 한 명을 납치함으로써 미국이라는 한 국가 전체를 공격하는 상징적인 테러가 된다는 점에서 테러조직이 선호했다.

10) <http://www.tkb.org/GroupTacticModule.jsp?startDate=01%2F01%2F1968&endDate=12%2F31%2F2006&domInt =0&pagemode=tactic&imageField.x=43&imageField.y=9>

인질납치테러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정치적 선전효과가 높아 1970년과 19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박기륜, 2004 : 227). 1996년에 발생한 페루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질납치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은 쿠바의 최고지도자 카스트로가 망명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선전했으며, 심지어는 일본 방송사 기자 두 명을 페루 경찰 몰래 불러들여 인터뷰를 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최진태, 1997 : 192-210)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교관, 정부 인사에 대한 Hostage-Taking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이들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및 경비 대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테러조직에게 연성목표였던 대상이 강성목표, 즉 강성목표(Hard Target)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러조직은 새로운 연성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Kidnapping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저널리스트 및 방송기자, 외교관, 기업체 소속 근로자 등 인질납치테러의 대상에 대한 구분도 없다. 저널리스트 및 방송기자에 대한 인질납치테러가 빈발한 곳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동지역이다. 기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질납치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콜롬비아이며, 대부분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행되었다. 외교관에 대한 인질납치테러가 빈발한 곳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이다(Frank Bolz, Jr., Kenneth J. Dudonis, and David P. Schulz, 2002 : 111).

최근에는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 납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교관보다는 기업인에 대한 한 납치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납치의 경우 공격 대상에 대한 보안대책이 전무하거나 미비하여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를 통해 거액의 석방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납치가 급증했다.(Richard Clutterbuck, 1987, 14-24) 이에 따라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테러조직이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질납치테러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보이기 시작했다(Frank Bolz, Jr., Kenneth J. Dudonis, and David P. Schulz, 2002 : 112).

4. 암살 테러

암살이란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는 정적이나 사회적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구성원간의 상호 반목을 조장하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공격방법을 말한다(박기륜, 2004 : 228). 암살은 주요 인사에 대해 한명 내지 두 명의 테러범이 한조를 이뤄 자행하는 방식에서부터 폭발물을 설치하여 살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암살을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한 테러 조직은 150개

조직이다.¹¹⁾ 가장 대표적인 암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페르디난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 암살사건이 있다.¹²⁾

암살의 기원은 로마 시대의 황제 암살에서 비롯될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암살을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일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파키스탄의 총리를 두 차례나 역임했던 베나지르 부토 여사의 암살 사건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5. 방화 테러

방화테러는 사회적으로 최대한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발화물질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방화는 다른 유형의 전술보다 극적인 면이 다소 덜하지만, 테러범에게는 위협부담이 적고 기술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치 않은 전술이다. 통상적으로 단순 방화 사건과는 달리 테러조직은 공포 확산을 위해 대형 방화를 획책하거나 연쇄적으로 방화하는 수법을 동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테러는 폭발물 테러, 무장공격, 인질납치, 암살 등과 함께 빈번하게 이용되는 테러 전술이다.

III. 국제 테러 양상에 대한 전망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후 테러조직의 전술은 폭발물 테러, 무장공격, 암살 등 커다란 변화가 없이 지속되었으며, 테러의 수단역시 폭발물,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과연 이러한 과거의 경향은 변함없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에 의해 이제까

11) [http : //www.tkb.org/GroupTacticModule.jsp](http://www.tkb.org/GroupTacticModule.jsp)

12) 1914년 6월 보스니아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대연습을 참관한 페르디난트 왕세자부처는 귀국길에 이 지역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다. 6월 28일 오전 10시 사라예보에 도착한 황태자부처는 헤르체고비나 총독의 영접을 받으며 무개차에 승차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시청 광장으로 행차하던 도중에 괴한으로부터 수류탄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황태자부처는 무사하였고 뒤따르던 메르치 대령을 비롯한 3명의 수행원과 수십 명의 군중들이 부상하였다. 폭발사고가 나자 페르디난트 황태자와 동승하였던 포티오렉 장군이 황태자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황태자는 이를 듣지 않고 차에서 내려 흉탄에 부상한 메르치 대령을 몸소 부축하여 차에 태운 후 병원으로 보내고 자신은 궁으로 돌아가려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분노한 황태자는 귀로도중 메르치 대령이 입원한 병원으로 다시 가자고 명령하여 황태자의 승용차가 방향을 바꾸었으나 선도차가 새로운 행선을 통지받지 않아 방향이 빗나갔으며 황태자의 운전수도 지리를 몰라서 사건현장 부근까지 차를 다시 몰아 방향을 바꾸기 위해 머뭇거렸다. 이에 황태자 부처는 일차 공격에서 실패하여 돌아가던 또 다른 괴한으로부터 권총 저격을 받고 무참하게 사살 당하였다.

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명쾌한 답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국제 테러의 현황과 유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분명한 것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무기체계 성능의 가속적 발전 추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핵폭탄과 같은 크기 또는 힘을 과시하는 무기나 연구 집약적인 고가의 무기보다는 단순하되 효율성이 좋은 무기체계가 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개발된 플라스틱 폭탄처럼 일반적인 탐지기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종류의 폭탄이 점차 다양해질 것이다.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테러의 역사 속에 나타난 유형적 특성들을 고려할 때 21세기의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될 테러의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국가 안보의 화두로 삼고 있다. 테러대응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암약하던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단기간 내에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다.

테러조직들은 이전의 수단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할 것이며, 21세기의 첨단화된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는 그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범위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게 될 테러리즘의 수단과 방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전통적 테러의 지속

전통적 테러는 요인암살, 인질납치, 항공기 테러 등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대표적인 테러 양상을 의미한다. 과학화의 진전이 테러조직에게는 새로운 전술적 도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테러 수법이 가지는 매력으로 인해 이러한 공격 유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인사에 대한 암살은 전통적으로 테러조직이 선호하는 공격 수단이었다. 그 이유는 테러조직이 공격 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 때문이다. 테러조직이 공격목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징적인 가치이다. 상징적인 가치는 테러 목표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대표성을 가진 가치이다. 예를 들면 외교관, 고위급 장성 등은 일반 개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외교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선전적 가치이다. 선전적 가치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이다. 정부 고위인사의 경우 일반인과 같은 한명의 개인이지만 상징적인 가치로 인해 일반인보다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가치이다. 구체적인 가치는 테러조직이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가치이다. 유형의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피해이며, 유형의 가치는 심리적 피해, 즉 극단적인 공포의 확산을 통한 광범위한 공황 상태의 유도 등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며, 이는 곧 경제적 측면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보호를 받는 대상이 테러를 당할 정도면 일반인들은 쉽게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요인을 포함한 외교관, 고위 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 등은 테러조직의 공격목표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공격목표가 된다.

항공기 테러는 그 어떤 테러의 유형보다도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손쉽게 언론(言論)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항공기의 이용객이 다국적(多國籍)임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테러는 납치, 공중폭파,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항공기 테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9.11 테러 사건에서 증명되었다. 인질 납치 역시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술적 이점이 있다. 이 중에 테러범들이 도피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항공기 납치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초대형 인질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테러수단의 다양화

테러의 3대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테러의 수단이 다양화될 것이다. 테러에 이용되는 무기는 폭발물, 총기류, 중화기, 도검류, 화염병, 소이탄, 우편폭탄, 독극물 등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전통적 무기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테러에 이용될 것이다. 그 이유는 테러조직이 이들 무기들을 이미 수중에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Surface-to-Air Missile)이 테러의 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휴대용 대공 미사일(man-portable air-defense systems : MANPADS)는 치사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륙 또는 착륙하는 항공기에 공격을 가할 경우 탑승객 대부분을 사망시킬 수 있다. 둘째, 휴대용으로 소형이기 때문에 은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MANPADS의 길이는 약 1.5m 정도이며, 무게는 12~18kg 정도로 골프가방에 넣을 수 있고 소형 차량 트렁크에 실을 수 있다. 셋째로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국제 암시장에서 재래식은 1기당 수백 달러이며 개량형은 1기당 약 5백 달러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서 경제

력이 풍부하지 못한 테러조직이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30여개 정도의 테러 단체가 견착식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진태, 2006 : 120-123).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수단이 테러의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9.11 미 테러 사건이었다. 9.11 미 테러 사건시 납치범들은 종이박스 절단용 칼 등 원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민간 여객기를 공중 납치했다. 그리고 납치한 항공기 자체를 테러의 수단으로 하여 자살 테러 방식으로 고층 빌딩에 충돌시켰다. 민간 항공기가 테러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모습의 대테러 활동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방패가 등장하면 그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다시 개발되기 마련이다. 테러조직은 앞으로도 보다 치밀하고 예측 불가능한 테러 수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때로는 첨단무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지극히 보편적인 수단이 테러에 이용될 것이다.

3. 자살테러의 확산

자살 테러는 오랜 역사를 가진 테러 유형 중에 하나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살 테러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9.11 미국 테러 사건은 자살 테러의 종합 결정판이며,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보복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자살 테러는 전형적인 테러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자살 테러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앞으로 가장 위협적인 테러 수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일어난 실질적 자살 테러 사건은 1981년 레바논 이라크 대사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6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두 번째 자살 테러 사건은 1983년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Hezbollah)에 자행되었다. 1983년 10월 23일 아침 이른 시간에 12,000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노란색 벤츠 트럭이 베이루트에 있는 미 해병대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여 사령부 건물 정면으로 돌진하여 자폭했다. 이 사건으로 241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그리고 같은 날 프랑스 군 주둔지에서 또 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58명이 사망했다. 헤즈볼라에 의한 두 건의 자살 테러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평화유지군이 철수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US DOD, 1983 : 141) 헤즈볼라의 자살 테러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점령군 철수라는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자살 폭탄 테러가 헤즈볼라가 가장 선호하는 전술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에는 헤즈볼라에 의해 선발된 젊은 레바논 여성이 차를 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탑승한 트럭에 충돌한 후 자폭하여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살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테러조직이 이용하는 전술이 되었다. 1993년 9월 13일의 오슬로 평화 협정 체결 이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Palestinian Islamic Jihad)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쇄적인 자살 테러 캠페인을 전개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집트의 테러조직인 Egyptian Islamic Jihad(EIJ), 터키의 Kurdistan Worker's Party(PKK) 등도 자살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 역시 대규모 자살 테러를 자행해온 조직으로, 대표적인 자살 테러 사건에는 미 해군 함정 콜호에 테러 사건,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테러 사건 등이 있다(Schweitzer, 2000 : 3-5).

자살 테러는 충동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공격 목표의 선정, 자살 테러범 선정 및 훈련, 자살 테러 방법, 자살 테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잔인한 테러 수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살 테러는 분리주의자 혹은 극단적인 종교주의자 그룹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다. 자살 테러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자살테러는 개인의 우발적 행동보다는 테러 조직의 연쇄적인 테러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자행된다. 둘째, 자살테러는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적 목적의 일부이다. 셋째, 대부분의 자살테러는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해 주로 자행된다. 넷째, 여성 자살테러리스트를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섯째, 자살 테러는 비용 대비 피해 효과가 막대하여 다수의 희생자 발생이 뒤따르며,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어 테러조직의 정치적 선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Pape, 2006).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능력을 가진 현대의 무기 체계와 목적 달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자살 행위가 결합되는 자살 테러는 전례가 없는 치명적인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이 성전(聖戰) 혹은 순교(殉教) 작전 수행을 선동 하고 있고, 이들 조직들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자살 테러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살 테러 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자살 테러 역시 합법적인 전쟁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많은 단체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 민족, 지역, 종교에 대항하는 자살 테러는 합법적인 전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살 테러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테러 전술과 항공기 납치, 차량 탈취 등이 결합된 자살 테러는 더욱더 치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횡수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량살상무기의 테러 수단화

화생방무기 및 핵무기(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 CBRN)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메카 테러의 시대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메카 테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그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여영무, 2006 : 297-361). 미 본토에서 발생한 최대의 테러 사건인 9.11 대참사, 최악의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 사건인 3.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그리고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발생한 7.7 런던 테러 사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를 전쟁의 대체수단으로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대응도 대테러 전쟁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테러가 전쟁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테러의 양상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전쟁의 목적은 '적의 궤멸'에 있다. 테러 조직도 테러를 통해 공격 대상이 되는 국가에 보다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테러로 인한 극소수의 희생만 발생하더라도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언론을 이용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정치적 선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테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얻을 수 있었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격 대상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전술 채택을 통한 언론의 활용이라는 테러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테러 조직이 비(非)재래식 무기, 즉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의 테러리즘(Old Terrorism)이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 측면이 강했다면,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쟁에서는 적의 궤멸이 목적이므로 승리 이외에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최대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뉴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화학물질 및 생물무기가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95년 일본의 옴진리교 교도들이 인구가 밀집한 도쿄 시내 전철역에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5천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9.11 미 테러 직후에는 탄저균 테러로 인하여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사례는 지구촌 곳곳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창용, 2007 : 125-127).

테러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조직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보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

해이다. 영국 해외정보국(MI6)은 9.11 테러공격의 배후에 있는 테러조직들이 이미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라덴이 이라크 등으로부터 생물무기를 사들이거나 구소련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모두 함께 죽자”는 막 무가내 식의 공격을 자행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빈자의 원자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생화학 무기는 소규모 시설을 통해서 값싸고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제 3세계 국가로까지 널리 확산될 뿐만 아니라 동경 사린가스 공격에서 경험한 것처럼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5. 비(非)물리적 세계에 대한 테러 확산

비(非)물리적 세계에 대한 테러는 물리적 세계에서 자행되는 테러가 아닌 가상 공간에서 자행되는 테러를 의미한다. 물리적 세계의 테러는 눈에 보이는 공격이며, 비(非)물리적 세계에 대한 테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 즉 사이버 공간에 대한 테러인 것이다. 사이버 테러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테러이다. 사이버 테러범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가상공간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현재 인류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물리적 세계가 가상공간의 세계로 쉽게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리적 세계가 가상공간의 세계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차고의 문을 열고 닫는 자동 개폐 시스템, 교통통제, 항공기 관제통제, 금융업무의 처리, 식료품 공정 처리, 의약품 제조 공정 처리, 국방관련 통제 처리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물리적 세계에서 가상공간의 세계로 전환되어 있다.

가상공간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의 경우 과거에 테러로부터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활동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2000년 4월 26일의 CIH바이러스 사건시에는 국내에서만 30만대 이상의 컴퓨터가 피해를 입었고 수리 및 데이터 복구에만 약 20억 원이 소모되었다. 전 세계적인 피해액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스팸메일의 사례는 2001년 3월 나토의 유고 공습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습이 시작되자 유고 정부는 자국의 컴퓨터 사용자와 타국의 지지자들에게 나토의 무력행위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미 국방부, 백악관, 나토본부 등에 동시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들의 전자우편폭탄 공격으로 인해 미국과 나토의 주요기관에서 운용하는 웹사이트가 하루 종일 마비되고 특정 업무수행이 정지되는 혼란이 발생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공격과 방어 대상인 재래식 전쟁과는 달리 정보전이라고 불

리는 사이버 테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공격과 방어의 대상이다. 아울러 가상공간까지 전장에 포함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사이버 테러리즘은 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이버 테러리즘 수행을 위한 비용은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테러의 경우 재래식 전쟁과 비교하여 전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명확했던 공공과 개인의 이익, 전쟁과 범죄행위 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국가 간의 지역적, 정치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즉,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공격 행위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시작된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심지어는 공격 대상은 물론 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전선이 따로 없는 전쟁이다. 정보기술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후방도 전방과 동일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정보시대에는 통신, 전력, 유류 저장과 송전, 운송, 급수, 응급 서비스 등 국가의 모든 기반 구조가 서로 연결된 정보기반 구조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이버 테러는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공격 효과가 큰 대상들이 사이버 무기로 무장한 사이버 테러리스트에게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에 있어서는 전장과 후방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잠재적 전장(戰場)이 될 수 있다(이창용, 2007 : 138-143).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럭에 폭탄을 싣고 공격 목표물을 향해 돌진할 필요가 없다. 비행중인 항공기 폭파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도 없다. 요새화 되어 있는 군사기지에 침투하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하고 중무장하여 침투할 필요도 없다.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동안에 목숨을 잃을 염려도 없고 체포될 염려도 없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들의 은거지에서 발견되지 않고 원하는 공격 목표물을 정하고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를 전 세계에 드리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리즘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IV. 결 론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 간의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은 감소했다. 현대 전쟁은 비용과 인명 손실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폭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도래가 국가의 안보적 위협을 약화시키는 데 상당 수준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는 종래와는 다른 성격과 유형의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제 각국은 적대국과의 전면전이나 이해를 같이하는 블록 국가군 간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상의 위협은 물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즉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에 행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기존의 전쟁개념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복잡한 전쟁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인 것이다. 둘째, 전장과 전선이 모호하여 국민국가 단위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후방과 군인·민간인의 구분이 없고 정규군을 포함한 군사력끼리의 싸움만으로는 판가름이 나지 않는 전쟁이다. 셋째, 비대칭적 전쟁이다. 힘이 없는 소수 조직이 엄청난 힘과 조직을 가진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차원은 물론 우리 군 차원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의 작전 활동은 전통적 군사작전 이외에 정치 및 외교, 경제, 민족, 종교 등 비군사적 요인에 의한 국지분쟁과 저항도 분쟁, 전시작전 이외의 군사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테러에 대한 대응은 새롭지만 시급한 임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 테러리즘은 인질, 납치, 암살, 폭탄테러 등 소규모 폭력성을 보여 주었던 것에 반해 탈냉전 후의 21세기 뉴테러리즘은 핵,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대규모 폭력성의 슈퍼테러리즘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리즘과 극단적 자살테러라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뉴테러리즘은 부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정적 현상에 기인한다. 테러대상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 테러리즘에서의 테러대상은 주로 일국의 저명한 인물 혹은 민간인의 경우는 항공기 납치 및 인질을 통한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테러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볼 때 선별적이였다. 그러나 21세기 뉴테러리즘은 민간인 혹은 일국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량살상 및 대량과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테러 사건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었다. 전쟁의 최종 목적은 적에게 최대한의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가 테러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저렴한 제조비용에 비해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생화학 무기가 새로운 위협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과거 생화학 무기는 세계대전, 걸프전 등 주로 전쟁이나 전면적인 양상을 보이는 분쟁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1995년 일본 옴 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살포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미 탄저균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세균무기까지 테러의 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균을 사용하는 생물테러는 저렴한 비용과 엄청난 인명살상 효과로 ‘가난한 자의 원자 폭탄’ 불리고 있다.

이러한 테러 수단의 다양화는 전통적 테러와는 전혀 다른 대처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 정세 및 테러 조직의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잘 조직화되고, 고도로 훈련된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 대응은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테러는 진화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대응도 진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과학화의 진전에 따른 테러의 변화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화된 대테러 활동 기법이 마련됨으로서 테러조직의 전략과 전술을 한 단계 앞서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정원(2007). 「2006년도 테러정세」, 테러정보통합센터.
_____(2006). 「2005년도 테러정세」, 테러정보통합센터.
- 박기륜(2004). 「국제범죄론」, 서울 : 비전캐릭터.
- 박준석(2006). 「뉴테러리즘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 여영무(2006). 「국제테러리즘연구」,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이창용(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 대영문화사.
- 이광열·김창호(2007). 생물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 311-336.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대영문화사.
_____(2006).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서울 : 대영문화사.
_____(199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 대영문화사.
_____(1999). 사이버 테러리즘의 본질과 전망, 「한국경찰학회지」, 1 : 219-242.
_____(2001). 정보화시대의 정보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44(1) : 217-250.
_____(2002). 국제테러리즘의 기원과 변천, 「국방연구」, 45 : 11-37.
_____(2004). 항공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대테러 보안정책 발전방향, 「대테러 연구」, 27 : 233-258.
- Celmer, Marc A., *Terrorism(1987), U.S. Strategy, and Regan Policies*, London : Mansell Publishing.
- Clutterbuck, Richard(1987), *Kidnap, Hijack and Extortion : The Response*, London : Macmillan.
_____(1990), *Terrorism and Guerrilla Warfare : Forecasts and Remedies*, London : Routledge.
- Cronin(2003), Audrey Kurth, *Terrorists and Suicide Attacks*, CRS Report for Congress(August 28, 2003) : 1-22.
- Gunaratna, Rohan(2003), *Terrorism in the Asia-Pacific : Threat and Response*, Singapore : Wastern Universities Press.
_____(2004), *The Changing Face of Terrorism*, Singapore : Wastern Universities Press.
- Hoffman, Bruce,(1998), *Inside Terror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JIn-Tai Choi(1994), *Aviation Terrorism*, London : Macmillan Press.
- Laqueur, Walter(2004), *Voices of Terror*, New York : Reed Press.
- Pape, Robert A.(2006), "Suicide Terrorism and Democracy : What We've Learned

- Since 9/11,” *Policy Analysis*, No. 582 : 1–18.
- Schweitzer, Yoram, “Suicide Terrorism : Development &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for Counter–Terrorism*(21 April 2000).
- Tan, Andrew & Kumar Ramakrishna(2002), *The New Terrorism : Anatomy, Trends and Counter–Strategies*, Singapore : Wastern Universities Press.
- US DOD(1983), *Report of the DoD Commission on Beirut Airport Terrorist Act*, October 23, 1983.
- Wardlaw, Grant(1989), *Political Terrorism : Theory, Tactics and Counter–Measur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on, Paul(1986), *Terrorism and Liberal State*, London : Macmillan.

ABSTRACT

A Study of the Future Terrorism : Its Patterns and Perspectives

Choi, Jin-Tai

With the Japanese attacks on Pearl Harbor in 1941, approximately 2,500 people were killed. The terrorist attack on World Trade Center in the United States resulted in the heavy loss of people's lives, 2,749 in all. The 9.11 demonstrated that terrorist attack could be more serious problem than the war in our modern life. In addition, terrorist armed with new and high technologies have become more dangerous elemen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used by terrorist organizations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The strength of terrorist arsenal gives terrorist a decided advantage over us. The chances of success for terrorist have been increased due to the terrorist friendly environments.

Terrorism has evolved without stopping from its birth, which is imposing a great burden on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counter-terrorism strategy and tactics used in the past have been useless in the fighting against new terrorism.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terrorism,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the enemy. To achieve the goal, the current situa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as a whole i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tried to give a perspectives on the future terrorism.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guidelines of the direction in the fighting against terrorism.

Key Words : Patterns of Terrorism, Perspectives on Future Terrorism, Counter-Terrorism, Terrorism Environments, Terrorism Statistics